

사설

대학특성화 계획 수립 시류(時流)에 휩쓸려서야

모든 것에는 그것을 그것에게끔 하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 논리학에서는 이 본질적인 것을 종차(種差)와 최근류(最近類) 개념을 이용해서 정의한다. 예컨대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할 때, 높은 등급을 뜻하는 '고등'은 종차, '교육기관'은 최근류이다. 여기에 따르던 대학은 교육기관이요, 고등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기관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국립대학, 거점국립대학, 제주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 개별화된 수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면 그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학 생존이 대학 특성화 여부에 직결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시류(時流)에 휩쓸린다는 데 있다.

돌이켜 보면 대학 특성화가 화두가 된 것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부터이다. 면학분위기 조성, 과열된 입시경쟁률해소, 사학(私學) 제정난 극복 등을 이유로 내세운 1980년대 졸업정원제가 십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비롯된 대학의 양적 팽창이 오히려 당면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5년의 "대학 양적 팽창 제동"이라는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되었듯, 대학의 양적 팽창이 대학교육개혁과 직결되고, 첨단·세계화 분야 및 이색학과 신설이 마치 특성화의 방향인 것처럼 인식되었다(경향신문, 1995.10.7. 3면).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를 살펴보면, 양적 팽창으로 비대한 대학을 시장경제논리에 던져 놓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제주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우리 제주대학교도 그동안 꾸준히 특성화 분야를 발굴 선정해왔고, 이를 근거로 학교발전비전을 수립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국책사업에도 응모해왔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는 특성화계획 수립 TF팀을 결성하여 그동안 사업 단별로 산재해 있던 특성화 담론을 하나로 묶을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그 성과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종수정단계에 있는 그 면면을 보면, 이리저리한 기준 하에 해양바이오산업, IT융합기반청정에너지, 아열대 생물산업, 창의융합MICE를 대학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정작 '제주'도 '국립'도 '대학'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2003년에 수립된 3+1(관광산업, 해양과학, 아열대생물산업+탐라문화) 체제만 못하다.

2005년 9월 『대학교육』 제137호에서는 대학 특성화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학문 분야나 기초학문 분야 등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다. 여기에서도 확인되듯이 지역거점국립대학의 특성화는 시장경제논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완수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베끼는 것을 국립대학의 특성화로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논리의 위협에 움츠러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대학의 자율성으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특성화의 실패한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 제주대학교의 특성화가 '제주-국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재일동포 단합 이끌어 한민족·동북아 평화 조성해야”

10일 '재일한국인 연구의 오늘과 내일' 학술대회 개최 정책·이주사·민족교육·사회경제활동·어문학 등 살펴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는 지난 10일 '재일한국인 연구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문화교류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재일한국인 정책 및 갈등 △재일한국인 연구 자료와 이주사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과 사회·경제활동 △재일한국인 언어와 문학 등 4주제로 10개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진희관(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재일동포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연구동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진 교수는 "북한에서 개인의 연구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를 접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주이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방향

을 발표했다.

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을 진단했다. 진 교수는 "북한은 재외동포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전개했지만 북한의 경제난으로 조총련 등의 단계도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조직의 약화가 재일동포의 민족 정체성 상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민족으로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들의 단합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부찬(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동향과 발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지 70년이 돼가고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찬 교수는 "법적지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재일한국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의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다"며 "1965년에 한일간에 맺은 '기본관계조약', '법적지위협정', '청구권협정' 등의 한일협정은 두 나라 간 역사의 상흔을 헤집어 놓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법적지위협정'을 개정해 1991년 합의각서에 약속한 법적지위 및 처우의 수준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재일한



'재일한국인 연구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0일 문화교류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부찬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국인들이 요구하는 지방참정권은 물론, 민족교육 및 취업, 사회보장제도 등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고려와 법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이념과 갈등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재일조선인 민족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재일한국인 언어 연구의 동향과 과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지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취업박람회 10일 열려

8개 회사 참가 채용설명회도 '산업의 미래전략' 포럼 개최

'제3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주포럼 잡 페어(Job Fair)'가 지난 10일 공과대학 4호관 강당과 로비에서 열렸다. 취업전략본부,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참여해 회사 소개와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잡 페어는 (주)에드워드코리아, (주)YIKC, (주)아인스 S&C, (주)씨아이맥스,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HP), (주)KCTech, (주)유아이, (주)제로웹 등 8개의 회사가 참여했다.

공과대학 4호관 강당에서는 학생들에게 회사 소개와 채용안내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소개했다.

로비에서는 회사 면접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면접을 진행했다. 공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학생들은 부스에서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묻고 채용면접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제3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주포럼도 진행됐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제주교육박



제3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주포럼 Job Fair'가 지난 10일 공과대학 4호관에서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회사 채용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제3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치규(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주포럼-2013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선도

기업의 성공전략을 논의했다"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핵심기술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김종훈(영어교육과) 교수 '탐라스승상' 수상

김종훈(영어교육과)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탐라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제주교육박



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뮤지엄극장에서 열린 제32회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수상했다.

김 교수는 도내 교사 영어 연수를 비롯해 도민과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자육상, 5개 메달 획득 전국종별육상대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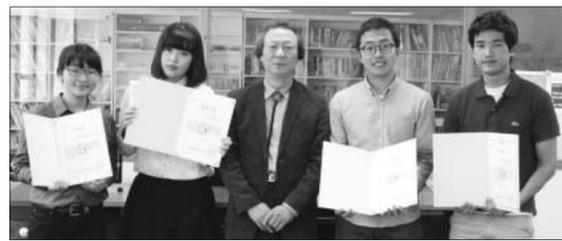
여자 육상부가 제42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 1, 은 2, 동 메달 2개를 따내는 성적을 올렸다. 이 대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고 경기도육상경기연맹이 주관했으며 지난 2일부터 5일간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 육상경기장에서 열렸다.

외교원 에세이 공모 오주연씨 최우수상 수상

외국어교육원(원장 허운덕)은 지난 8일 외교어교육원 수강 성공사례 에세이 공모우수작 시상식을 가졌다.<사진> 에세이 공모 우수 수상자로 최우

수상에 오주연(국어교육과 4), 우수

상에 김진성(영어영문학과 3), 장려상에 임성민(영어영문학과 4), 김은주(관광경영학과 1)씨를 선정했다. 외국어교육원은 에세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5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강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어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어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주대학교는 개교 61돌을 기념하여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깃든 제주어의 진승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2013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엽니다. 제주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장인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1. 대회 일정 및 주제 • 일시: 2013년 6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세미나실 • 주제: 자유 2. 참가 자격과 대회 방식 • 참가 자격: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개인 또는 2인 1조 '2007~2012 제주어 말하기 대회' 대상·금상 입상자 제외 • 방 식: 말하기(연극적 요소 배제) • 소요 시간: 5분 내외 3. 시상 내역 • 대학생부 △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30만원 상당 상품 △금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20만원 상당 상품 △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10만원 상당 상품 △동상(3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5만원 상당 상품 • 학생부(초·중·고등학생) △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30만원 상당 상품 △금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20만원 상당 상품 △은상(1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10만원 상당 상품 △동상(3명): 제주대학교총장 상장과 5만원 상당 상품 △지도교사상: 제주대학교 총장상과 부상 4. 참가 신청 접수 • 일시: 2013년 5월 2일~5월 30일 •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참가 신청서는 제주대학교 누리집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서 작성하면 됨. (사진 포함) • 접수 방법: 우편, 전자 우편, 모사 전송, 누리집, 직접 방문 △주소: 우편 번호 690-756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누리집: http://malgeul.jeju.ac.kr △전자 우편: halla2712@jeju.ac.kr △모사 전송: 064-726-2440 ※우편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모사 전송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람. • 문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064) 754-2712, 2738 제주대학교 개교 61돌 기념 2013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교수시론



양용준
영어영문학과 교수

“

집념·인연·사색의 길을 걸으며

사제간, 부부간, 친구간의

사랑과 우정을 떠올려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

스토리가 있는 추사유배길에서 5월을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이름! 그러나 추사체, 세한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의 달 5월에 추사를 갑자기 떠올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가면 추사유배지가 있다. 추사가 55세의 나이에 제주로 유배를 와서 근 10년 세월을 보냈던 곳이다. 지금은 추사유배지가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곳을 찾는 많은 도내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양진건 교수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아 조성하고 추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추사유배길이 세 개의 코스로 조성되어 있다.

제1코스는 '집념의 길'이라는 코스로 추사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완성한 불후의 명작 추사체와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떠올리게 하는 코스로 생각한다. 물론 나는 역사학자이거나 국문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로 스승의 날(15일)이 있는데 '집념의 길'에서 세한도가 탄생한 배경을 생각해 보았다. 추사가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되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지만 오직 역관의 신분이었던 이상적이라는 제자는 머나먼 제주로 유배를 떠난 스승님인 '추사 김정희'를 위해서 한

양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제자가 너무나 고마운 추사는 세한도를 그려 사랑하는 제자 이상적에게 주었다. 세한도에는 추사와 그의 제자 이상적의 사랑과 존경심이 스며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세한연후지송백지후초(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 :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 오늘날 특히 5월 스승의 날에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하기 위한 추사의 집념과 노력을 떠올리게 되었다. 열 개의 벼루와 천 자루의 붓을 다 닳도록 쓰고 또 쓰고 해서 완성된 작품 [칠십년마침집업독진천호(七十年磨穿十研弄盡千毫)]가 바로 추사체라는 것이다.

이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아니 어쩌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어에 빗대어 말한다면 10권의 영한(한영, 영영)사전과 천 자루 아니 만 자루의 펜을 다 닳도록 공부한다면 어떤가를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나는 영어영문학과 교수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로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제2코스인 '인연의 길'에서 다시 5월을 생각해 보았다. 추사가 머나먼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5월 가정의 달로 부부의 날(21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심지어 추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갔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와 조선시대 사대부이지만 아내에게는 한글로 편지를 쓸 정도로 부부가 남달랐던 것 같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및 가정세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해 있다.

5월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차를 좋아했고 수선화를 좋아했던 추사에게는 초의선사라는 벗이 있었다. 신분이 달랐지만 그들의 우정은 돈독했던 것이 확실하다. 옥지에서 추사가 유배와 있는 제주로 벗을 보러 왔던 초의선사나 그를 맞아 정성이 가득한 차를 다리고 서로 마시던 모습은 친구간의 따뜻한 우애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또한 5월 청소년의 달에 떠올려 볼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3코스 '사색의 길'에서 추사의 흔적을 떠올리며[은고이지신(溫故而知新)] 5월 가정의 달에 혼자서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잠시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 아닌가 한다.

이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에 추사유배길을 걸으면서 사제간의 정과 사랑,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을 떠올려 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추사유배길에서 5월을 생각해 본다.

동문칼럼

세상을 보는 시선과 위치



안미정
한국해양대 HK연구교수
사회학과 87학번

지도보기를 좋아하는 나는 지금도 가끔씩 고등학교 『사회과부도』를 책꽂이에 두고 찾아보기를 하거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클릭해 지구의 이곳저곳을 확대축소해 보고 또 간혹은 측면과 상공에서 보기를 반복한다. 넓은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지, 가보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이렇게 보는 재미는 나름 쏠쏠하다. 물론 보이는 것이라고 바다나 산, 강, 길, 지붕들뿐이라 하더라도 대륙과 반도, 섬들을 한 시야에 두고 볼 수 있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보기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보던 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 평면적인 책 속의 지구와 달리 구글 어스의 지구는 보는 이의 '시선과 위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다. 아이콘을 클릭할 때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듯하고, 한 정소를 모든 방향에서 확대축소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 시선을 가진 존재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주관이나 관점, 혹은 세계관이 가치관이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신이 어떤 시각을 가진 존재임을 가정하고, 그것을 신념화하거나 삶의 철칙으로 삼기도 하지만 또 살면서 바뀌기도 한다. 나 역시도 나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처음 그대로의 불변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내가 대학을 다닌 1980년대 후반자락은 취업보다 세상을 읽는 눈과 실천이 더 강조되던 때였다.

지금처럼 경제 어떤 일(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문득, 아스팔트가 뜨거웠던 민주광장과 선거 때가 되면 만장기로 가득했던 야외음악당, 그리고 인문대 앞뜰과 박물관 뒤뜰이 눈에 선하다. 학교 앞 길변도 없는 식당에서 고갈비를 먹고, 일명 숲속의 빈터에서 막걸리를 사준 선배들, 스승의 날엔 학과 은사님들과 한라산 등반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공동체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이때 만들어진 것 같다.

옛 시절과 캠퍼스를 생각하다 다시금 내가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속으로 생각이 종종무진 달릴 때, 마치 구글 어스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한 개인의 생활세계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통해 살펴본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지구처럼 세상은 변화하고, 그런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세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복잡한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독립적(고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유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 된다는 말이며, 어느 지역도 다른 세계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물론, 마을이나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도 그렇다. 때문에 다각적(다층적)으로 나와 다른 것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는 비교의 시각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특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지금 일어나는 지역적이나 세계적인 이슈들과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관심사가 그래서인지, 나는 종종 제주도가 단지 자연경관이 빼어난 섬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사회가 주목해야 할 세계적인 화두와 메시지를 제주문화 속에 있음을 느끼곤 한다. 어떤 하나의 현상도 이리저리 다각적으로 살펴 봐야 하고, 가까이 갔다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곳과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며 비교를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미래의 어떤 생활양식의 한 측면임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섬없이 돌아가는 지구처럼 세상을 종합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좋은 직장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기(알기) 위해 '생각하는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특별기고

'한반도'란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최규일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말의 뜻(의미)을 모르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언어를 지배하는 자(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남북정책의 모색' 세미나 토론장에서, 이른바 정부 요직 인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치학의 대학학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한반도'란 말을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나는 지켜보았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연례 심포지엄에서도 [2013.5.6.], 유독 일본인 발표자는 일본말로 '강한도(韓半島)'를 쓰면서 지적학적으로 영토 문제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발표자들이여! 국제 학술회의나 학술심포지

엄 토론장, 특히 남북통일을 바라는 자리에서, 더구나 통일을 외치는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일본식 '한반도'란 말을 굳이 써야 하나. 왜 '한반도'란 말을 쓰면 안 되는가? 그 까닭은 언어가 세상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반도(韓半島)'란 표현은 지난 역사에서 일본이 '절반만 섬'이란 뜻의 '반도(半島)'로 규정하여, 이 땅을 일본 열도(列島)에 편입시켜 속도(屬島)로 삼아 속국(屬國)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인의 저의가 짙게 깔린 용어이다. 여기 '반도'란 조선의 비칭이며, 침략자 쪽에서 일본이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한 용어'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와 정치를 왜곡시킨 말이다. 동시에 '한반도'는 우리의 영토(領土) 분쟁과도 뿌리깊이 연관된다(최규일, 『일상생활에서 버려야 할 언어 유산-일본식 말』, 국회도서관보 2005년 8월호, 70-86면 참조). 이러한 뜻을 모르고 무심코 지금까지도 계

속 이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민족정신에 관한 모욕(굴욕)이다.

늦었지만 우리가 도저히 써서는 안 될 일본인의 속셈이 담긴 일본식 한자어임을 자각하자. 더구나 의식 있는 지성인이려면, 이 말은 이제 버려야 할 언어 유산(遺産)이요, 폐기처분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 엘리엇은 "지성인(엘리트)이 되려면 언어불감증에서 퍼뜩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나라가 1950년 6·25전쟁으로 분단국이 된 이래로,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分斷國)의 서러움과 고통을 극복하여 해결해 가야 할 즈음에, 게다가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할 대한민국이 자칭 반도(半島)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말과 글의 표현이 하나의 숙명(運)인가, 운명(運)인가? 이처럼 '한반도'란 말에 담긴 뜻도 모르고 너 나 없이 함부로 이 말을 쓰며, 평소 대다수 사람들이 언어 표현에 무관심하여

소홀히 지나쳐버리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잘못된 언어 습관은 고쳐야 한다. 국어는 일상생활에 삶의 기초가 되는 나라의 기본법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이 기회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의 '한반도'는 바꾸어 우리말로 바로 고쳐야 한다. 말을 바꿀 때는 앞뒤 문맥에 따라 잘 어울리는 좋은 말을 찾으면 된다.

국민 행복 시대, 우리의 국호를 살려 '대한민국'을 크게 외쳐보자. 이제부터 '한반도'란 표현은 버려라. 특히 일본의 왜곡된 용어들을 정화(淨化)하면서, 일본식 언어 표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우리식의 우리말 표현을 하도록 힘쓰자. 그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행복의 열쇠'를 찾는 이들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더 빛난다. 나라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독자기고

미디어가 청소년 문제 키운다



김태엽
사회과 3

영상 매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독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이 서양 근대사회의 발전에 토대가 됐다.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어 발전을 꾀하였고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민족의식이

을 당했다. 이는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미디어를 접하면서 무비판적 수용으로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노조절에 실패하여 충동적인 범죄가 발생한 사례이다. 그리고 최근 양산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부산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 절반 이상이 성범죄에 가담하였으며 초등학교생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신속성과 편리성을 추구하여 국민들의 삶은 편해졌지만 그 속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 위로하고자 하던 영상매체가 결국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영상을 보고 발달한 호기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신적 성장을 망쳐놓는 절도, 살인, 성범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학교 폭력의 심각성으로 국가에서 청소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더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형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전에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실시하여 게임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독일에 비해 법적 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등급분류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막아야 한다.

그 외에도 게임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소통의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 미래의 빛이 되어 줄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가정에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완전한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고민 우 정치외교학과 2

김태환 전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제주도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모든 학자와 제주도민들은 제주도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1990년 12월 민주당과 평민당이 참여한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이후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지 7년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모든 국민들이 원하던 지방자치제의 모델이 됐을까? 답은 아니다.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이 느끼는 '특별자치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주간경향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지 체감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도약을 원하던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규제와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표류로 완전한 특별자치도를 표방하지 못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인 입법권이 조예 제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권한이 없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예로 4·3사건 개정 특별법이 국회에서 몇 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가 입법권이 있다면 모든 제주도민의 슬픔인 4·3 사건 특별법 개정이 빨리 통과됐을 것이다. 다른 예로 재정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돈을 빌려오는 우리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민5세 무상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독립된 사법권이 없어 중앙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 김태환 전 지사는 공식선언거부를 위반해 맹백한 지식적 박탈 사유이지만 중앙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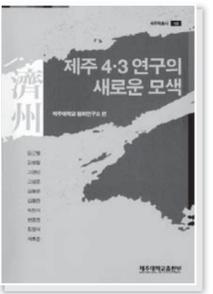
제주도는 하와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연방국인 미국의 연방주이다. 하와이는 독립된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 등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을 가지고 있다. 입법권을 가진 하와이는 우리가 막대한 로비를 해야 통과가 되는 카지노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켰다.

이렇듯 제주도는 하와이처럼 완전한 독립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진정 필요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이 진정 제주도를 생각한다면 서둘러 특별자치도 법 개정안을 빨리 발의해야 한다.

제주도가 완전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소위 '켄당'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도와 사람들은 이 문화를 비롯한다. 하지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완전한 자치도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7년이 연장되지 않고 그 잃어버린 7년이 제주의 완전한 특별자치도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길 빌어본다.

제주학총서 13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 330페이지 |
| 15,000원 |

서문_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고성준]

제1부 4·3 연구, 어디까지 왔다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허호준]

4·3 연구의 쟁점 [박찬식]

제주 4·3 진상규명운동의 성과와 과제 [고경민]

제2부 4·3과 역사/문학의 새로운 모색
제주 4·3 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 [김동진]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동운]

제3부 4·3과 정치학의 새로운 모색
4·3사건의 국제정치적 배경 [강근형·강병철]

제주 4·3사건의 전개과정 [반종헌]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과제 [고경민]

보론
제주사이드의 사회이론 [장원식]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 오키나와를 가다 <5>

“전쟁의 아픔을 평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미군기지 당장 전면철수하긴 어려워” “제주해군기지 문제, 오키나와서 배워라”

취재단은 나가미군에 위치한 류큐대학교를 방문했다. 류큐대학교는 오키나와 유일의 국립대이다. 우리는 류큐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과의 카미야 교수와 이케다 교수, 문화인류학과에 재학중인 나가미네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을 통해 오키나와 현지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나가미군에 위치한 류큐대학교는 23개 학과로 이뤄졌다. 류큐대학교는 제주대와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있다.

이 한 번에 철수하는 것은 센카쿠 열도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영향이 크므로 바로 전면 철수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빨리 기지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카미야 교수는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미군이 상주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1609년까지 오키나와는 류큐라는 하나의 나라였다. 일본의 침략으로 류큐 왕국은 무너지고 일본이 오키나와를 간섭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됐다. 그때는 서양국들이 동양으로 많이 오던 시절이었는데 이 때 오키나와는 일본을 통과하는 바닷길로 매우 중요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공격한 이유도 이와 같다. 일본을 고립시켜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카미야 교수는 이어 전쟁 이후 오키나와 인들이 생각하는 일본과 미국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에 징병됐던 세대는 자신을 오키나와 사람이 아닌 일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 오키나와로 돌아오면서 미국으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본 본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

1960~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편입되면서 일본을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 봤다. 일본 본토 사람은 오키나와 사람을 무시했고 그로 인해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반발심을 더 크게 가졌다. 세대는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본토 사람도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세대에는 일본과 마찰이 없었다. 20대는 일본 자체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냥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오키나와 사람이 아는 미국인은 대부분 미군기지 내의 군인이 아니면 그 가족이다. 그러다 보니 미군기지가 없는 남부와 북부 사람은 미국 자체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중부 지역 사람들은 미군기지가 있다 보니 영향이 크다. 어떤 주민은 미군으로 인해 장사가 잘 되니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미군이 일으키는 성범죄 등으로 인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일본처럼 세대별로 다르게 보는 시선이 없는 것 같다.”

카미야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하여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례를 들면서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면 완공되기 전에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취재단은 류큐대학교에서 한국과 제주를 잘 아는 교수와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카미야 토모야키 교수, 이케다 에이시 교수, 나가미네 마키코 학생.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기지들이 들어선 지 오래 됐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다. 그러다 보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빨리 철수하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는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된 이후에는 경제 등 다양한 이유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반대한다면 건설되기 직전에 철회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 학생 미군기지에 반대... 하지만 관심 크지 않아

한국에 유학한 적이 있는 나가미네 마키코(25)씨는 오키나와에 거주하고 있는 20대들이 생각하는 미군기지를 설명했다.

“미군기지와 관련해 오키나와 남부와 북부 지역에 사는 학생은 관심이 적고 기지와 밀접해 있는 중부지역 학생만 관심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지역을 구분할 필요없이 대부분의 학생은 미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군 범죄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반대는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만 부모님이 자기 주변에서 미군과 밀접한 일을 하는 학생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 또 관심 있는 학생만 관심을 가질 뿐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총학생회는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키나와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오키나와에서 평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케다 에이시 교수는 “오키나와의 관광은 처음에는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고 사망자를 기리는 목적으로 평화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직지나 평화기원자료관은 오키나와 전쟁을 통해 사망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고 평화의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를 만들고자하는 뜻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찾고 자료를 모았다. 오키나

와 주민들은 전직지가 관광지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일본인이었고 사망자와 이들 가족을 위해 만든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지를 단순한 관광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애도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더 중점적인 측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케다 교수는 오키나와에서 평화 활동을 통해 오키나와의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평화 활동을 하는 것은 오키나와가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됐으면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폐허가 됐지만 이 전쟁을 바탕으로 평화의 초석이 돼 모든 이들이 전쟁의 두려움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

4·3을 겪은 제주, 6·25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김동현 기자

미군기지는 서서히 없어져야

문화인류학과 카미야 토모야키 교수는 미군기지와 관련해 오키나와 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을 모두 설명해줬다. 오키나와의 평화를 위해 미군기지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려줬다.

카미야 교수는 “기지가 들어서야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키나와 경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미군들이 오키나와에서 소비해 주는 것이 오키나와 경제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서서히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키나와는 미군의 섬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들

머뭇거리지 마라, 청춘아!

JDC 대학생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4_6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3월 5일 국제교류회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3월 12일 국제교류회관 변정일 JDC 이사장
3월 19일 국제교류회관 최종일 브로로아바, 아이코닉스 대표
3월 26일 국제교류회관 김현진 청년사업가, 창업멘토
4월 2일 국제교류회관 박신영 공모전대가
4월 9일 국제교류회관 정재승 빅 기획자
4월 23일
4월 30일 국제교류회관 송인혁 TED오가니저, 작가
5월 7일 국제교류회관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5월 14일 국제교류회관 이승일 파워메이커
5월 21일 국제교류회관 고승덕 변호사

VOD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b.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문의 064) 754-2306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목소리

» 오키나와의 반미 물결

반미(反美) 감정 확산... 주민 시위 계속 “군대는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강조

평화와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오키나와 현지인들의 반미(反美)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에게 '군사기지 68년'의 역사는 아픔과 분노의 기억으로 점철돼 있다.

집집마다 방음창을 설치했지만 주택가 바로 인근에 위치한 활주로 때문에 비행 소음은 귀를 찢는다. 또한 잇을 만하면 재발하는 미군들의 사건·사고에 주민들은 진저리를 낸다. 2004년 8월 13일에는 오키나와 국제대학 본관에 미군 헬기가 추락하기도 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기지의 위험성을 새삼 각인시켰다.

카데나 공군기지 앞에서는 10여 명의 현지 주민들이 '양고 홈(Go Home)'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각종 손팻말과 빨간색 티셔츠에는 'Osprey No'가 쓰여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제발 미군기지 좀 없애 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이들이 내걸고 있는 구호는 '오스프리(Osprey) 배치 반대'다. 미군의 신형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는 최근 5년간 38건의 사고를 낸 비행기다. 미국은 이 항공기 12대를 오키나와 남부 인구 밀집지역인 후텐마 기지로 들여왔고, 올해 카데나 기지에 수십 대를 더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기지 탓에 수십 년간 겪어온 소음 피해, 비행기가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떠안게 됐다. 그 순간에도 카데나 기지의 헬기들은 주변 상공을 맴돌았다.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일본 당국은 오키나와가 자국 방위와 미일 동맹을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오키나와에 군사기지가 있는 이상 평화의 섬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주민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치른 오키나와의 무고한 희생과 제주의 아픔이 닮았다”면서 “우리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본토 대중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응어리진 가슴을 제대로 풀어낼 기회조차 없



다”고 말했다.

이런 반미시위의 배경에는 태평양 전쟁기간의 오키나와전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체득한 현지인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19세기까지 류큐라는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했던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의 전진기지로 전쟁의 한복판에 섰고, 전후에는 미국에 의해 강제 기지화된 뒤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이 때문에 현지인들의 감정은 미국이나 일본 정부 양쪽 모두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취재단이 오키나와에서 본 미군 기지는 후텐마와 카데나 기지 두 군데였다. 사카미 미술관에서 바라본 후텐마 기지는 일부가 숲에 가려 활주로를 포함한 기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후텐마 기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카카즈 코타이공원 전망대에서 3-4명의 현지인들이 기지를 근접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4층 건물의 미치노에기 전망대에서는 광활한 카데나 기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카데나 기지의 활주로는 F-15 전투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너른 개활지는 비어 있었다. 이어 저 멀리 로딩대에 불을 단 F-15가 굉음과 함께 솟구쳤다. 카데나 미공군기지의 3.3km 활주로를 내달은 F-15는 행선지를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다. 카데나 기지는 총면적 445㎢, 오키나와의 남북을 가르는 중앙부에 위치해 섬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곳 미치노에기 전망대에서는 평화 활동가들이 매일 기지를 관찰하거



카데나 공군기지는 너무나 광활해서 활주로 넘어 도열해 있는 전투기와 격납고들이 작은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위). 현지 주민들이 카데나 기지 앞에서 오스프리 수송기 배치 반대를 외치며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래).

나, 학생들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벌이곤 한다. 또한 전망대에는 먼 곳을 근접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영상용 카메라를 지닌 오키나와 현지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카데나 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F-22 스텔스 F-15 이글스와 같은 전투기의 사진을 찍어 매스컴에 송고하거나 사진으로 인화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전망대에서 만난 평화활동가들은 “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강조하며 미군기지의 해외 이전만이 오키나와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대는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깨달음은 미군기지의 철수가 전쟁 없는 오키나와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굳어졌다.